



‘글로벌 오뚜기’ 도약  
2028년까지  
해외매출 1兆 달성  
L1



Life

활동성에  
스타일은 덤  
숏패딩 뜬다  
L2



# 연세대 논술 가치분 이의신청 기각

### 법원 “채무자 패소 부분 정당해”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학교, 2심 항고할 듯… 장기화 예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재시험 이행’ 본안소송 전까지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소송을 낸 수험생 18명)들의 가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루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가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 2024. 10. 12. (토)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입니다. 시험당일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고사를 치렀던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이에 연세대는 곧바로 가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연세대의 가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측은 심문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가치분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대학과 수험생들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라며 “12월 13일(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오세훈 “특장점 살린 회전문 인사도 필요”

野 시의원, 측근 인사 돌려쓰기 지적  
세입 증대 위해 재산세 60% 조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 인사 돌려쓰기’를 자제하라는 야당 서울시원의 지적에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며 신경전을 펼쳤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한데 주의하라”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어휴, 그게 무슨…”이라며 “주의하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한번 써 보면 어디에 특장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극대화해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맞받아쳤다.

최근 1년간 오 시장의 인사 임명으로 인해 박정숙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로, 강명 서울시 정무수석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로,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 정책특보로, 신선중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시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을 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세입 증대를 위해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북권이 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파주시, 민생회복 위해 사상 최대 예산 편성

2025년 2조1527억 편성… 7.3%↑  
약자보호, 민생활력, 자족도시 집중

파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파주시는 20일 2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예산 증가율(3.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확대재정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대비 ▲3대 핵심 분야에 1조 원 이상 투자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 예산 반영 등에 초점을 두고, 김경일 시장은 “확대재정은 필수”를 강조했다.

파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민생 현안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97억 원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됐다. 국·도비 보조금(7,475억 원)과 교부세·교부금(4,000억 원) 등 이전재원을 적극 확보하며, 재정자립도는 다소 하락(51.9%→51.1%)했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을 확대했다.

파주시는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1조 1,364억 원을 집중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호서대 LINC3.0사업단, 지산학 협력 강화

### 푸드테크 관련 IC-PBL 모델 구축 농업기술원과 식품개발 역량 강화 대학-고등학교 연계 교육모델 개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전환을 앞둔 대학 LINC3.0 사업단이 지산학(地産學·지자체-산업-대학) 협력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LINC3.0사업단은 식품공학과, 교내 부서와 협력해 푸드테크(식품개발분야) 관련 ‘기업 연계 문제기반학습(IC-PBL)모델’을 구축해 확산에 이바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일 호서대에 따르면, 기업연계 문제기반학습 교육 모델은 올해 초 사업단 참여 학과인 식품공학과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내 교육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최종 3개의 연계성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우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업체가 충청남도 내 기초 지자체 농촌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리빙랩을 이용한 식품개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차에 걸쳐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소비 성향 분석과 시제품 개발 과정 견학 등을 통해 농업인 생산 제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도 강화했다.

이어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 식품·과학 동아리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푸드테크(식품개발) 지도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교육청, ㈜중가, ㈜풀무원과 교내 부서, 학과와 연계·협업체가 ‘푸드테크 사업(식품개발) 계획 아이디어’를 주제로 전국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공모전 및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공모전에서는 참가팀이 K-FOOD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출품해 경쟁했다. 그 결과 고등부와 대학부에 각

각 ▲충청남도교육감상 ▲글로벌 중가혁신상 ▲풀무원기술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전체 IC-PBL 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한 채희정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LINC3.0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비교과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과 지자체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라며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IC-PBL 모델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우 호서대 LINC3.0사업단장도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구축된 지산학 협력 IC-PBL 교육 모델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도 지역 주력산업 학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코트 떠나는 ‘훈신’ 라파엘 나달 고별전  
▲FA 3티어 김하성 “다년 계약 가능”  
/사진 뉴시스

▲‘조현우·양민혁·안데르손’ K리그1 시즌 MV전  
▲4명 중 3명이 ‘상무 입대’…FA 보상 선수로 미래에 투자한 구단들  
/이현진 기자



▲‘메시 도움’ 아르헨티나, 페루 꺾고 월드컵 남미 예선 선두  
▲NBA 클리블랜드, 개막 15연승 마감…보스턴에 패배  
/사진 뉴시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8 | 해질 / 17:17

11월 21일 (木)  
음력 : 10월 21일

수도권 날씨  
6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3, 동두천 3/14, 가평 2/12, 양평 4/13, 용인 7/14, 평택 6/14, 파주 1/14, 서울 6/14, 인천 7/14, 수원 7/14, 백령도 9/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가**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